

제4권 (1단원) 예수님의 비유

(제4과) 포도원 품꾼의 비유

- 본문 : 마태복음 20:1-16
- 요절 :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6)
- 찬송 : 271장(새찬송가 495장), 358장(새찬송가 552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친 희생과 수고에는 반드시 후한 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 19:27) 하였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 곧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먼저 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는 하루하루 벌어서 연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일자리를 얻고자 시장 공터에 모여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품을 파는 날에는 가족을 먹일 수 있었지만 일거리를 얻지 못한 날에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와서 품꾼들을 불러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으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시장 공터에 나가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며, 심지어 해가 기우는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품꾼들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또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은 이른 아침이 유년기를, 아침 9시는 청소년기를, 낮 12시는 청년기를, 오후 3시는 장년기를, 오후 5시는 노년기를 각각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부름을 받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죄값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요 6:44上)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지기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부터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에 이르기까지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자 먼저 온 자들은 더 많이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자 주인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유에 의하면,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에 온 품꾼들이 자기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자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지 못한 데 대하여 주인을 원망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 공로를 내세우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묵묵히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일에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말없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서 인정받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끝까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비유는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이 도중에 안일과 나태에 빠지는 일이 없이 신앙생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사람이라도 자칫 방심하면 시험에 들어 신앙의 길에서 퇴보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비록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일지라도 겸손히 신앙생활에 힘쓰는 동안에 어느 사이엔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나 혹은 현재의 신앙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향상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2~14)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각오로써,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바 직분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즉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